Entertainment p/20

'투명인간' 결국 사라진다

metro
메트로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제3180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박태환 자격정지 받을까?

오너 공백 SK '콩가루'

텔레콤·브로드밴드, 정보누출에 주주권익침해 시끌

경질된 네트웍스 사장은 "왜 자르냐" 항의 이메일

"구경만 해도 다이아반지" 갤S6 바람몰이 시작

더 원한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 앱에서 확인하세요

'오비맥주 물값징수 무리수' 왜 나왔나

물값 소멸시효 5년…경기도 2009년도분 징수하려다 무리수
감사 결과 징수기준 문제되자 뒤늦게 국토부 유권해석 요청

경기도는 지난해 말 오비맥주에 시효가 임박한 2009년도분 남한강 물값을 서둘러 징수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문제가 되는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건너뛴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법과 원칙이 아닌 여론을 더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남경필 지사의 취임 이후 연정 시도 등 최근 경기도의 정치지형 변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비맥주는 1979년 공장이 세워진 이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값을 면제받아 왔다. 경기도는 '하천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주시청에 오비맥주에 대한 물값 징수를 지도했다. 댐 관련 법률의 면제조항은 이중부과 방지조항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

여주시청은 지난해 12월 관내에 자리한 오비맥주 공장에 2009년과 2010년 2년분의 남한강 물값 1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어 1월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분의 물값 31억여원을 부과했다. 오비맥주는 부과된 물값을 전액 납부했다.

표면적으로는 뒤늦게나마 오비맥주는 내야할 돈을 냈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실수를 시정한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미숙한 일처리는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물값 징수는 경기도조례에 따라 연도시작 3개월 이전에 선부과한다. 2015년도 물값은 2014년말에 부과한다는 이야기다. 오비맥주에 대한 여주시청의 물값 징수는 경기도조례 위반이다. 징수를 지도한 경기도청 담당자는 뒤늦은 징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오비맥주가 납부한 44억원가량의 돈은 36년간 사용한 물값의 일부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오비맥주의 물값 면제 사실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청 담당자는 12월에 여주시청을 찾아 징수를 지도했다. 제때 넘겼다면 소멸시효에 따라 2009년도분 물값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동으로 대변되는 공무원 문화를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담당자는 "지방세수 등을 고려해야 했다. 문제가 된 이상 빨리 조치를 취해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두른 탓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값 부과기준은 그냥 지나쳤다. 물값 부과 시 허가량으로 부과하느냐, 아니면 사용량으로 부과하느냐의 문제다. 담당자는 "관련 법 제정 당시에는 허가량으로 명시했지만 법제처를 거치면서 쉬운 용어로 바꾼다는 취지에서 이를 생략,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게 됐다"며 "물값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을 허가받아 1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왜 100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토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경기도는 오비맥주 문제를 계기로 감사반을 운영해 물값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과 기준을 둘러싼 몇 건의 문제 사례를 발견,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허가량을 부과기준으로 결정해 이를 경기도에 통지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일려졌다.

하지만 여주시청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여주시청 담당자는 "도 조례를 해석해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선부과를 하는 거다. 허가량이 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기도 담당자도 여주시청에 오비맥주 물값 징수 지도 당시 부과기준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 담당자는 공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기 전 서둘러 물값징수를 지도한 배경에 대해 "지도 당시는 아직 (오비맥주 문제가) 언론에서 터지기 전이었다.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비맥주 문제를 제기한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근서 경기도의원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계수조정소위원장을 맡았다. 2015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자리다. 경기도의회에서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라 더욱 힘이 실리는 자리다. 양 의원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오비맥주 문제를 공론화시키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오비맥주를 '제2의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남 지사는 지난해 예산안 통과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 야당과의 정치연정에 이어 예산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 지사의 연정을 두고는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서두른 물값 행정에는 이 같은 경기도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송병형기자 hnsong@metroseoul.co.kr

검열때문일까 구글에 밀렸을까

metro HongKong

야후 중국시장 철수 굴욕

雅虎全面撤出大陸

야후가 중국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메트로홍콩은 야후가 중국 베이징 연구개발센터를 닫고 직원 200~300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후의 중국사이트인 Yahoo.cn 도 이미 폐쇄된 상태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싱가포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메트로홍콩은 야후의 중국시장 철수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전했다. 2013년 야후는 중국 유저의 메일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편 야후의 베이징 연구센터 철폐는 정부의 검열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야후는 전세계적으로 경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에 대해 부인했다. 구글 등 경쟁사와의 경쟁 압박으로 이윤 증대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앞서 올해 초 미국 게임퍼블리셔인 징가(Zynga)도 중국 시장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중국에서 철수했다.

컨설팅회사인 차이나마켓리서치의 CEO인 숀 레인은 "일반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외국의 인터넷회사들은 막강한 자본과 공격성을 가진 중국 회사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야후처럼 중국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중국 시장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연구개발센터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리=이국명기자

'천안함 용사 친구를 기리며' 천안함 피격 사건 5주년을 나흘 앞둔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이상준 중사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예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지자체 방만재정 정조준

특별조사국 포함 100여명 투입해 70여개 지자체 감사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에 들어간 가운데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조준해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3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방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대상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0여개, 기초지자체 60여개를 비롯해 70여개다.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 · 50여개 지자체를 추가해 2차 감사도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예산낭비 ·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은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찰활동도 병행한다.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분석해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예산낭비를 막은 공직자를 발굴해 모범사례로 선정, 포상하기로 했다. /이유리기자 lyr@

한중일 '정상회담 조기개최' 합의

한일 양국은 적극적, 중국 '과거사' 이유로 신중 … 성사 여부 불투명

한·중·일 3국은 중단된 지 3년이 된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다. 하지만 조기 정상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한·일과 달리 중국은 역사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기 성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일 3국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장관회의 후 배포된 언론 발표문을 통해 "3국 외교장관들은 금번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2012년 5월 이후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3국 정상회의가 연내에 개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일 협력을 논의하는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열렸다. 2008년부터는 아세안 회의와는 별도로 매년 한·중·일 3국을 돌면서 개최됐다. 하지만 중·일 외교갈등 등이 격화되면서 2012년 5월 중국에서의 회의를 끝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2011년까지 11회 개최)'와 별도 정상회의(2012년까지 5회 개최) 모두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3국은 또 "3국 장관들은 2012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체제가 복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3국 협력 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3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3국 협력 현안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며 "이번 발표문은 3국 장관회의에서 5년 만에 채택된 것으로 채택 자체로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에서 "일본은 전부터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중시해왔다"며 "오늘 회의에서 조기 개최에 합의했음을 환영한다. 한·중 양국과 협력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최근 몇 년간 3국 간 양자관계가 특히 중·일, 한·일 관계가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국 협력도 이로 인해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일본을 겨냥한 역사 공세에 집중했다. 그는 '정시역사 개벽미래(正視歷史 開闢未來·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연다)'라는 한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26일 이학수법 공청회

박영선, 4월국회 입법전쟁 전초전 시작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4월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이학수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번 공청회는 여론몰이를 위한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새정치연합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기조발제는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가 찬성측 토론자로,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와 전원배 변호사가 반대측 토론자로 나선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17일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이학수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4월국회에서 이학수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北 "南 주민들 대피하라"

삐라살포 타격 경고

북한이 탈북자단체가 천안함 사건 5주기를 기념해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22일 경고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발표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비난하며 "모든 타격수단들은 사전 경고 없이 무자비한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측이) 물리적 대응 조치에 원점타격 등으로 도전해 나서는 경우 2차, 3차 정밀타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수단이 풍선이든 무인기이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타격대상 수단의 괴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영공, 영토, 영해에 대한 그 어떤 침범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인근 주민들은 군사적 타격권에서 벗어나 미리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탈북자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했으며 우리 군도 이에 응사하면서 양측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북한의 강력한 경고는 탈북자단체의 김정은 암살영화 '인터뷰' 살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은 '인터뷰' 살포는 엄중한 도발이자 사실상 선전포고라며 한미 군사훈련에 이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6일을 전후로 대북전단과 '인터뷰'를 살포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윤아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90일 허탕' 우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 동안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대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종료 시한을 엿새 남긴 22일 현재 '허탕' 결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등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 개혁 단일안을 도출, 입법 절차를 담당하게 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이 달라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도 단일안 도출은커녕 갈등만 겪고 있다.

갈등의 중심은 각자가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이다. 현재 최대 가입기간이 33년인 공무원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30년 가입기준 37.5%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기초제시안 역시 3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을 30.93%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적정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기준 60%로 제시하며 사실상 수급액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혁 방식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기여율과 지급률, 연금지급 개시 시기 등 핵심 변수만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절충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달 밝힌 공무원연금 정부 기초 제시안 외에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자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각자 입장조차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가 안을 내놓고 주도적으로 개혁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식적인 정부안'은 노사 협약을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 제출이 불가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국민대타협기구가 막을 내리면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특위 입법작업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대타협기구의 초보적인 논의 수준만 갖고는 특위 활동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기본적 사안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위에서도 국민대타협기구와 똑같은 논쟁만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이미하기자 lklk@

춤추는 정의당 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정기당대회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민 관광통역사 양성 내달 13일부터 교육 진행

한국나문화센터가 이주민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과정을 다음 달 13일부터 운영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안내하고 입국부터 출국까지 관광 일정 편의를 제공하는 국가공인자격이다.

센터는 지난해 이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과정을 개설해 2년째 운영하고 있다.

한국 출신이 아닌 이주민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은 오는 9월 시작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정기 자격시험에 대비해 11월까지 24주 동안 진행된다.

수강생 120명을 4개 반으로 나눠 관광자원·관광법규·모의면접 등을 주당 6시간씩 수업한다. 모의면접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로 진행된다. 모든 수업은 한국어로 이뤄진다.

수강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이메일(cmck@naver.com)로 받는다.

"Try out for Tour Guide Interpreters" Training course starting on the 13th of next month

Korean Multi Cultural Center is opening a training course for immigrants on the 13th of next month. Tour guide interpreters will guide foreign tourists through Korean history, culture and tour sites. They will also be in charge of providing the tourists all of the services needed during their tour from arrival and departure process to scheduling the whole tour. The center is hosting this program for the past 2 years to create employment opportunities to immigrants. This program which is for non-Korean immigrants and exchange students will be held for 24 weeks (until November) considering the Tour interpretation test in September. There will be 120 students divided into 4 classes, 6 hours a week, learning about Tour resource, Tour policies and Pre-Interview. Pre-interview will be held separately for those who apply for the class. All classes are taught in Korean and class registration is until the 13th of next month. (Apply at cmck@naver.com)

/번역 파고다 영어강사 Chris Kim(크리스 김)

슈퍼문+개기월식 '아마게돈'?

조수간만차 무려 17m

물에 잠긴 프랑스 몽생미셸 /AP·연합뉴스

재난영화 '아마게돈'에서 지구를 초토화했던 자연의 한 파고가 실제로 관측돼 두려움을 낳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BBC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달이 지구에 가깝게 접근하는 '슈퍼문'과 '개기일식'이 겹치면서 세계 각국이 '세기의 조수'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다.

캐나다 수로청에 따르면 동남부 펀디만과 언가바만의 경우 조수간만 차가 무려 5층 빌딩 높이인 17m에 달했다.

프랑스 해양수로청이 예측한 만조와 간조 해면수위 차도 무려 14m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프랑스 북대서양 연안의 유명 관광지 몽생미셸은 밀물 때 바닷물에 둘러싸여 섬으로 바뀌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보기 위해 관광객 2만여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영국에서도 런던 템스강변이 조수의 영향으로 물에 잠겼다.

이외에도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군도인 티에라 델 푸에고, 호주 북부 연안 등에서 강력한 파고가 들이닥쳤다.

'세기의 조수' 현상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이어졌다.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서는 15명이 밀물 때문에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지롱드 지역에서는 78세 어부가 바닷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한편 미국 국립항공우주국(NASA)은 이같은 '세기의 조수'가 18년마다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세기의 조수'는 2033년 3월 3일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국명기자 kmlee@

교황과 어린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마피아 본거지로 악명높은 이탈리아 나폴리를 방문, 북부 외곽의 저소득층 지역 스캄피아에서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다. /AP·연합뉴스

"힘들어도 공부 중단하지 마" 캄보디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21일(현지시간) 여학생의 어깨를 짚으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하고 있다. 미셸 여사는 이날 가족부양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여학생들에게 "세상은 교육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포기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공부를 계속하라"고 격려했다. /AP·연합뉴스

美 등에 업은 日, 군사대국화 가속

미군지원 핑계 삼아 자위대 활동범위 전세계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미군 지원을 핑계 삼아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2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항구법' 신설을 핵대로 하는 안보법제 개정 방안에 지난 20일 합의했다.

'항구법'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언제 어디서든 미군 등 타국 군을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해외 파견하려면 매번 법률을 제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법제화할 경우 국회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 당시 내각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주변사태법의 전면적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판정하면 지구 어디에서든 자위대가 미군과 타국 군에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美·日 태평양전쟁 말기의 대표적 격전지였던 일본 이오지마에서 21일(현지시간) 미군과 일본군 전몰자들의 넋을 기리는 미·일 합동 위령식이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으로 국한된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전세계로 넓어지는 셈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포기한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전후 70년간 견지해온 '전수(專守) 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의미)' 원칙은 또 한차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 우려 목소리도

일본이 이처럼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 확대에 나선 것은 미국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을 이용해 보통국가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대미 지원 범위를 대거 넓히는 대가로 미국을 미일동맹의 틀에 보다 긴밀히 묶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방위에 관련한 미국의 대 중국 억지력을 높이는 '보너스'도 획득했다.

하지만 일본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사회 안에서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전쟁에 휩쓸리고 그에 따라 자위대원의 희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年 2.6%' 안심전환대출 내일 출시

"원리금 상환부담 유의해야"

연2%대 중반의 대출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24일 나온다.

단 한달 한도가 5조원 규모로 설정된데다 매월 납부할 원리금 상환액이 기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낮은 금리 수준, 수수료 면제 혜택 강점

2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24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신한·우리·외환·하나·씨티·SC·농협·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이용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으로 기존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해야 한다.

또 ▲변동금리 대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치식 대출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체기록도 '어렛달간 30일(연속)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용자는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대출의 강점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수수료 면제 혜택에 있다.

이는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과 만기때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 두가지로 금리는 각각 연 2.63%, 2.65%다. 상품의 만기는 10·15·20·30년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5%대다. 이에 따라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180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도 파격적이다.

통상 시중은행들은 대출 실행 후 3년 안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1.5%(2억원 거치식 대출시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 원리금 상환 능력 고려해야

하지만 금리가 낮다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갈아타면 대출금을 못 갚을 우려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전환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월 평균 상환액이 1.4~1.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다시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 한다면 이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2% 내야 한다.

아울러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보니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전환대출의 공급이 한정돼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총 재원은 20조원으로 이달에 공급되는 1차분 물량은 5조원 정도다.

평균 주택담보대출액 1억원을 적용하면 이달에 안심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만명뿐이 안 돼 조기에 완판될 가능성이 큰 것.

금융위 관계자는 "MBS발행 여건과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와 합동 상시점검반 운영해 전환대출 신청과 공급 동향, 콜센터 접신 민원 등을 면밀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을 원하는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이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체크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채나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김한조 행장(사진 가운데)이 고객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담소하고 있다. /외환은행 제공

김한조 외환은행장 "中企와 소통 지속…금융파트너 될 것"

외환은행은 지난 19일 중소·중견기업 경영인과 '2015년 외환은행 고객 초청 좌담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좌담회는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은행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올해 2월에 창조금융지원센터에 환리스크관리와 해외진출자문 컨설팅 전문인력을 보강해 급변하는 고객별 니즈를 충족하는 맞춤식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말 기준 중소원화대출 대비 기술금융 비중이 타행 대비 높은 상태로 올해도 담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고객과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금융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행장은 좌담회가 끝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오케이에프를 방문해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아울러 올 6월까지 영수인 지역 소재 영업본부를 두루 방문하며 실질적인 소통행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채나리기자

예보, 5700억원 규모 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예금보험공사가 25일 서울 중구 본사 세미나실에서 저축은행 파산재단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등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57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물건 정보가 공개되며, 사업 진척도가 높은 신탁 부동산도 대거 포함됐다.

감정평가금액 320억원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연립아파트 사업부지와 2만4000㎡ 규모의 경기 용인시 마북동 일대 주거용 시설 등 투자자가 높은 관심을 보였던 물건도 들어 있다.

참가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와 PF사업장 전용상담 창구(02-758-1002, master@kdi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illegible]

신한은행, 필리핀에 지점설립 인가 획득

신한은행이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지난 20일자로 필리핀 내 지점설립 인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필리핀이 지난해 12월 금융시장을 재개방한 이후 일본계 은행에 이어 현지 당국으로부터 지점설립 인가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사례라고 소개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이 첫 번째로 수교를 맺은 국가로 10만명이 넘는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필리핀 5위 교역대상국으로, 현재 1500여개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신한은행은 필리핀 마닐라에 전산 구축 등 지점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께 개점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로또복권 제[illegible]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8	17	18	24	39	45	3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일치	[illegible]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illegible]
3등	5개 숫자일치	[illegible]
4등	4개 숫자일치	50,000
5등	3개 숫자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illegible]

TEL 02)721-98[illegible], FAX 02)730-1551

회장 겸 발행인	[illegible]
사장·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91

LH, 전세임대주택 3만가구 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세임대주택(보증부 월세 포함)을 지난해보다 31.6% 증가한 2만977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운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 12만가구의 25%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LH가 올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일반 서민용 2만370가구, 신혼부부용 5400가구, 대학생용 4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7%가 몰려 있고, 지방(광역시 포함)에 43%가 공급된다. 최근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과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수요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수도권에서 나온다.

LH는 그동안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던 성남, 용인, 안산, 시흥, 고양, 남양주, 하남시 등 경기도 7개 시에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을 올해 500만원씩 올려 지원한다.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일률적으로 2%를 받던 것에서 지원금액 대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 지방은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임대지원금 이자는 2000만원까지 1%, 2000만~4000만원 구간은 1.5%, 4000만원 초과는 2%로 책정됐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보증부 월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휴주차 모집을 추진하고 LH 각 지역본부를 통해 올해 입주신청 미달 주택에 대한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착한 서당' 프로그램 진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에서 김봉곤 훈장에게 배우는 '착한 서당' 프로그램을 부모와 어린이 2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착한 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하늘색 '연두색 도포와 유건을 쓰고 방석 위에 앉아 예절 교육, 서예 체험, 전통놀이 등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사물재 공연을 관람하는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즐겼다.

GS건설, '문성파크자이' 당해지역 1순위 마감

GS건설이 경북 구미에 처음으로 공급한 '문성파크자이'가 전 타입 당해지역 1순위 마감됐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성파크자이' 905가구(특별공급 제외)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1만2975명이 접수했다. 이 중 당해지역에서만 1만1585명이 몰려 평균 12.8대 1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84A타입이 기록한 35.3대 1이다.

문성파크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박장렬 GS건설 분양소장은 "GS건설이 구미에서 처음 선보인 '문성파크자이'는 구미 내에서 선호도가 좋은 입지에 합리적인 분양가, 완성도 높은 상품설계 등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요소를 두루 갖춰 청약마감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성파크자이 분양가는 3.3㎡당 평균 749만원대(발코니 확장비 포함)이며 중도금(60%)에 대한 이자후불제의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26일, 계약은 4월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17년 7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 일부 세대에 적용될 테라스 이미지. /반도건설 제공

힐링 열풍… 테라스하우스 인기 후끈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 최고경쟁률 56.8 대 1

과거 고급주택에 주로 적용되던 테라스가 최근 일반아파트로 확산되고 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저층에 테라스를 적용, 판매율을 높이려는 건설사의 계산에서다.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단독주택의 쾌적성과 아파트의 편리성을 동시에 갖춘 주택을 선호자들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는 평균 9.4대 1, 최고 5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순위 내 마감됐다. 청라지구에서 공급된 36개 단지 중 네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의 열풍은 분양 전부터 예고됐다. 전용면적 84㎡과 비슷한 최대 70㎡의 테라스를 제공해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관심을 받았던 것.

이 외 서울 마아동 '꿈의숲 롯데캐슬' 테라스하우스 84T타입은 1순위에서 13.0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일반 84타입은 1.79대 1에 그쳤다. 위례신도시의 '위례자이' 역시 테라스 여부에 따라 같은 전용면적 121㎡라도 144.0대 1과 73.7대 1로 경쟁률이 차이를 보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테라스는 서비스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주거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테라스가 인기를 끌면서 소형아파트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의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만 보더라도 일부 1, 2층 세대에 약 50㎡(15평) 규모의 테라스를 제공한다.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4㎡인 점을 감안하면 집 크기의 절반이 넘는 면적을 덤으로 주는 셈이다.

분양 관계자는 "과거 김포한강에서 선보인 25평형 4.5베이 설계로 아파트 평면 혁신을 이끌었던 영광을 재현하고자 이번에는 테라스하우스를 계획하게 됐다"며 "최근 트렌드에 맞는 설계로 벌써부터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5월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공급될 '광교 중흥S클래스'도 일부 세대를 테라스하우스로 꾸밀 예정이다. 호수공원과 인접해 호수조망권을 갖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광교 마지막 연립주택 용지인 B1, 3-4블록에서도 테라스하우스 공급이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 다음달 분양될 '평창 올림피안힐스'도 폭 3~9m의 광폭테라스를 설계했다. 82~84타입은 3-bay를 도입해 일렌시아리조트, 스키슬로프, 스키점프대 등의 조망권을 확보한 것도 특징이다.

/박선옥기자 pso@metroseoul.co.kr

조용병, 해외 진출 승부수 통할까

캄보디아·베트남 이어 9월 필리핀 지점 개점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취임 초부터 해외진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필리핀 중앙은행(BSP)으로부터 당국 내 지점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전산 구축 등 지점설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필리핀 마닐라지점을 개점할 예정이다.

이번 지점설립 인가는 필리핀이 지난해 12월 금융시장을 재개방한 이후 일본계 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5위 교역대상국으로 현재 1500여 국내 기업이 진출해있다. 또 10만명이 넘는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속적으로 지역전문가를 확관, 지난해 하반기에는 필리핀 자유구역청(PEZA)과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공동으로 필리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베트남 호찌민시 최대 화교상권지역인 안동지역에 안동지점을 신규 개점하기도 했다. 이번 신규 점포 개설로 신한은행이 베트남 지역에 보유한 채널은 11개에 달한다.

이 지역은 대형 유통마장과 고급 레지던스, 호텔 등이 밀집한 곳이다. 신한은행은 이 곳에서 한국계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순수 베트남 고객 위주의 리테일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지난 17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시 상업중심지인 도은권지역에도 신규점포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연내 호주 시드니에 지점 설립을 추진 중이고, 멕시코 사무소도 올해 내 현지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8.3%였던 지난해 해외 수익 비중을 올해 10%로 끌어올리고 2020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용병 신임 행장이 취임사에서 신 성장 동력으로 해외진출을 꼽은 만큼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다양한 플랫폼을 해외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은행의 해외자산과 영업이익은 각각 171억3800만 달러, 1억2400만 달러로 외환은행(181억7400만 달러, 1억3400만 달러)에 이어 국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점포는 18개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신분당선 초역세권… 강남까지 9정거장

분양돋보기 – 대림산업 e편한세상 수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마지막 수지 대단지

20일 e편한세상 수지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꼼꼼히 분양 설명서를 체크하고 있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만 1만여명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e편한세상 수지' 견본주택을 오픈한 첫 날인 지난 20일 하루 방문객 1만 명을 기록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운영한 점을 감안했을 때 시간당 1250명이 방문한 것이다.

이창호 분양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수 밖에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진행되는 수지에서의 마지막 분양 대단지라는 점이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조역세권에 위치한 새 아파트라는 점도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성복역…강남까지 9정거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509-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수지'는 총 123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30층 10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84~103㎡다. 전용면적 별 분양 가구수는 ▲84㎡ 1177가구 ▲98㎡ 54가구 ▲101㎡ 5가구 ▲103㎡ 1가구다.

이 단지는 2016년 2월 개통을 앞둔 신분당선 연장선인 성복역(예정)과 성복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된다. 역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한 것은 물론 강남역까지 9정거장만 가면 돼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분당 정자~용인 수지~광교신도시를 잇는 구간이다.

강남과 함께 분당 판교 생활권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 역시 큰 매력으로 꼽힌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연결된 광교·상현 IC가 인접해 있다.

단지 전방 약 1km 거리 내 무려 1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여건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수지초등학교, 정평중학교, 풍덕고등학교가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

◆타입별 효율적 공간 구성 눈길

e편한세상 수지 견본주택에는 84㎡ A타입, 84㎡ E타입, 84㎡ G타입, 98㎡ 타입 등 아파트 4개 유닛이 마련됐다. 283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 가구수를 차지하는 84㎡ A타입과 207가구의 84㎡ E타입에 방문객들이 붐볐다.

이날 방문객들 사이에서 주목 받았던 것은 84㎡ A타입의 복도 센트리공간 등의 알파룸이다. 현관을 들어와 거실까지 이어지는 복도 벽에 구성된 센트리 공간은 넓은 면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 했다. 모든 타입에 적용된 안방 드레스룸과 아일랜드 식탁 밑 수납 공간도 현장을 찾은 주부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수지에서 온 한 주부는 "84㎡ A타입이 공간구성이 제일 잘 된 것 같다"며 "E타입보다는 A타입 같은 4BAY 구성을 선호하는 편이다. 센트리 공간부터 주방 옆에 다용도실까지 공간이 넓어 자질구레한 것들을 안보이게 수납할 수 있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84㎡ E타입 역시 큰 호응을 받았는데 방문객들은 그 이유로 단연 개방감을 꼽았다. 전 타입 중 유일하게 현관 발코니가 적용돼 유모차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부터 거실 발코니 창까지 거리가 5.2m나 돼 확트인 개방감도 현장을 찾은 주부들의 마음을 흡족했다.

김윤곤 분양 팀장은 "외부에 있던 전실을 내부로 끌어들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84㎡ 가구에서는 현관 발코니와 센트리공간이 주요 판매 포인트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한제 적용 마지막 단지… 3.3㎡당 1385만원

'e편한세상 수지'는 평균분양가가 기준층 기준으로 3.3㎡당 1385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13년 삼성물산이 수지구 풍덕천동 42-1번지 일대에 분양한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845가구가 수지 마지막 분양이었는데 당시 3.3㎡당 평균분양가는 1280만원이었다.

이창호 본부장은 "현재 삼성 이스트파크가 3.3㎡당 평균 144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아파트 당 약 5000만~80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의미인데 e편한세상이 이스트파크보다 더 역에 가까운 초역세권인 점을 감안하면 프리미엄 역시 더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편한세상 수지 분양가는 84㎡에서 4억2700만원부터 4억7730만원까지, 98㎡는 5억2770만원부터 5억4990만원 대로 형성됐다.

발코니 확장은 선택사항으로 확장비는 별도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60%는 무이자로 적용된다. 청약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일, 계약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843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상장사 배당규모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와 배당 횟수가 미국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간배당(분기배당 포함)을 실시한 국내 상장사는 모두 39곳으로, 전체 상장사 1834개사의 2.1%에 그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포스코, 삼성전자,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에쓰오일, 두산, KCC, 대교, 현대증권, GKL 등 28개사가 중간배당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 매니톡스, 리드코프, 청담러닝, 경동제약 등 11개사가 중간배당을 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3.6%, 1.0%만 중간배당을 한 것이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중간배당을 한 상장사는 두 시장을 통틀어 38곳씩이었다. 이는 중간배당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 시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미국은 대다수 상장기업이 연 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기배당을 한다.

지난해 애플은 2월과 5월에 보통주 1주당 3.05 달러와 3.29달러를 배당했고, 8월과 11월에는 0.47 달러를 배당했다. 3M은 분기마다 0.86 달러를 배당했고 세브론은 약 1 달러씩 배당했다.

미국에는 매월 배당하는 기업도 다수다. 미국에서 매월 배당을 하는 기업은 지난달 기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747개사로 집계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달리 한국 기업은 대부분 연간배당 뿐이다"며 "배당 결의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한국은 3~4개월이지만 미국은 1~3개월로 짧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KDB대우증권, 연 8.60% 수익 ELS 등 8종 판매

KDB대우증권이 지난 20일부터 ELS 8종을 총 7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2697회 HSCEI-EuroStoxx50-S&P50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만기 3년 6개월 자동조기상환 상품으로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8.6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연 8.60%의 수익을 지급한다.

한편, 제12694회 KOSPI200-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3년 만기 상품으로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2%(6개월) 90%(12개월) 88%(18개월) 86%(24개월) 84%(30개월) 82%(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7.65%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연 7.65%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번 상품들은 24일 오후 1시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희정기자 mari@

사상최대 슈퍼주총 27일 810개사 올려

12월 결산 상장사 810개사가 오는 27일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다음 주 1258개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선 KB금융지주 등 371개사와 다음카카오 등 823개 코스닥 상장사, 에프앤가이드 등 64개 코넥스시장 상장사 등이다.

27일에는 사상 최대인 810개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몰렸다. 유가증권시장 276개사, 코스닥시장 514개사, 코넥스시장 20개사 등이다.

이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사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LS, NH투자증권, NICE홀딩스, SH에너지화학, STX, STX엔진, STX중공업, 동부제철, 동국제강, 두산, 한진칼 등이다.

12월 결산 상장사 1836개사 중 삼성전자 등 553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끝냈고 에스엔씨엔진그룹리미티드 등 2개사는 4월 이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문기기자

'있으나 마나' SK수펙스 … 각종 논란에 위기 증폭

계열사 수장 퇴진조치 반발… 최태원 회장 빈자리 커지는 SK
SKT-SKB 주식교환 공시전 주가 급등, 정보유출 의혹 커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가 불협화음을 내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100% 자회사 편입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에 SK브로드밴드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하며 내부정보 유출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SK네트웍스에서 물러난 문덕규 사장은 SK그룹의 인사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구속된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SK를 이끌고 있는 김창근 수펙스 의장의 체제가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일 양사 이사회에서 각각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완전자회사 편입을 의결했다. SK브로드밴드 지분 50.56%를 보유한 SK텔레콤은 자사주와 SK브로드밴드 주주들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의 주가는 지난 13일 SK텔레콤과의 합병설이 재료로 불거지며 9% 넘게 급등한 4860원으로 장을 마쳤다. SK텔레콤이 16일 "합병 계획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3%대로 하락했지만 17일부터 4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20일에는 7.41% 급등하며 5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도 1980만주로 직전 거래일(355만주)의 5배를 넘었다. 기관투자자가 63만7000주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5만7000주 순매도 했다. SK브로드밴드 주가가 합병설이 제기된 13일 이후 일주일간 10% 가까이 오른 셈이다.

SK텔레콤의 합병설 부인에도 SK브로드밴드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타고 주식 맞교환을 추진한다는 공시가 나오기도 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이상 현상을 보이자 시장에서는 내부정보가 사전에 샌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 거래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선의의 개인투자자들 피해도 우려된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0.0168936이며 교환을 원하지 않는 SK브로드밴드 주주는 5월 6일부터 26일까지 1주당 4645원에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가치와 실적전망에 기반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SK브로드밴드의 상장폐지로 인해 매수청구권 가격 등에서 손실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할 수 있다. 5월 예정된 SK텔레콤 이사회와 SK브로드밴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발로 주식교환 안건 상정이 무산될 공산도 있다.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SK그룹 2015년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SK그룹 제공

계열사 사장 인사를 둘러싼 내홍 역시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 물러난 문덕규 SK네트웍스 전 사장은 김창근 의장에게 자신의 퇴진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문 전 사장은 김 의장에게 발송했던 메일을 최근 SK네트웍스 직원들에게 배포해 중심에서 쓴글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게다가 SK건설은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사업 과정에서 억대금품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 부재 이후 현상 유지를 위해 수펙스를 마련했지만, 이들의 경영회사 결정이 주주가치보다는 회사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계열사 수장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키는 등 리더십 훼손을 넘어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펙스가 오너 경영공백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조직 안팎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하기자 hasey@metroseoul.co.kr

▲수펙스추구협의회

SK그룹내 최고경영자 CEO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계열사별 독립·자율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룹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K그룹의 핵심 경영이념인 '수펙스(SUPEX)'는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의미한다.

삼성전자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열화관 앞에서 진행중인 'SUHD TV 시어터' 체험관을 찾은 고객들이 SUHD TV를 체험하고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

삼성 SUHD TV 초고화질 경험하세요

삼성전자가 SUHD TV의 화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4월 말까지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 앞에 초고화질 영화 체험관인 'SUHD TV 시어터'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어터에서는 개봉 예정작인 '쥬라기 월드'의 예고편을 비롯해 '라이프 오브 파이', '엑소더스', '신의 한 수', '해적', '역린' 등 국내외 인기 영화 하이라이트 영상 총 6편을 상영한다.

SUHD TV의 특징인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색감, 압도적 몰입감을 가진 생생하고 실감나는 영상을 즐길 수 있다. 퀴즈를 맞추는 경품을 증정하는 'SUHD 이벤트존' 등도 3가지 체험존도 마련됐다.

온라인 응모를 통해 'SUHD TV 시어터'의 UHD(초고해상도) 영화 좌석권 관람권과 레스토랑 식사권을 증정하는 '슈퍼 TV 프리미어 티켓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http://www.suhdtvtheate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현기자 ssw@

삼성·LG전자 '롤리팝' 업그레이드 진행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갤럭시노트3 와 G패드 7.0 등에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5.0버전 '롤리팝'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LG전자는 G패드 4종(G패드 7.0/8.0/8.3/10.1)에 대해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5.0 버전 '롤리팝'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롤리팝이 적용된 G패드에는 ▲입체적인 롤리팝 디자인 제공 ▲앱 실행 속도 향상 ▲잠금 화면 기능(잠금 해제 후 바로 실행, 스마트락 기능 추가) ▲최근 사용한 앱 리스트뷰 방식으로 변경 ▲절전모드 기능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LG전자는 지난 3일 'G패드 8.0'의 롤리팝 업그레이드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G패드 7.0'과 'G패드 10.1'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국내 이동통신 3사에서 출시된 갤럭시노트3에 안드로이드 5.0 롤리팝 업데이트 배포를 시작했다. /채성준기자

'갤럭시S6' 직접보고 만져본다

이통3사, 체험 매장 대거 오픈

이동통신3사가 내달 10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대규모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공식출시 전 해당 단말의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S6에 대한 예약가입은 일제히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SK텔레콤은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250여개 매장에 갤럭시S6 체험존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험이 가능한 매장은 온라인 가입처 T월드 다이렉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갤럭시S6·S6엣지 사전 예약 안내를 온라인 'T월드 다이렉트'에서 진행 중이다.

KT도 이날부터 일주일간 사전안내 이벤트를 진행한다. KT는 갤럭시S6 예약가입의 사전안내를 원하는 고객은 올레샵에서 관심기종, 색상, 이름,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KT는 올레 매장 중 250개 S Zone 매장(올레샵 홈페이지 참조)에서 순차적으로 갤럭시S6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사전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역시 테헤란로 직영점을 시작으로 국내 통신사 최다 300여개 사전 전시 매장을 운영하고 출시 시점까지 480개 매장으로 추가 확대한다.

서울 테헤란로직영점, 센트럴시티직영점, 종로직영점, 부산 광복직영점, 광주 충장로직영점, 대구 범어직영점, 대전 시청직영점 등 전국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고객들은 갤럭시 S6와 S6 엣지를 직접 보고 사용해볼 수 있다.

사전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이달 30일까지 사전 예약안내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갤럭시기어 VR2를 제공할 예정이다.

KT도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12명에게 갤럭시S6 콜라보레이션 액세서리인 스와로브스키 케이스를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9일까지 체험 매장을 방문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아몬드 반지(1명), 갤럭시S6(3명), 갤럭시S6 엣지(3명), 블루투스 스피커(20명), 2인 영화예매권(200명), 커피교환권(1000명)을 준다. /이재하기자

아시아나 '서울에어' 막아라…항공업계 기싸움

중소형 항공사 "대형항공사 시장독식" 반발

아시아나항공이 추진하는 제2의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에 국내 LCC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3사는 아시아나의 제2 LCC(가칭 서울에어)설립은 대형항공사의 시장독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규남(제주항공대표), 김정식(이스타항공), 정홍근(티웨이항공) 등 3명은 아시아나의 제2 LCC 설립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신규 항공운송사업자를 허용하는 것은 승객의 선택권 확대보다 대형항공사의 기득권 보호 측면이 강하다"며 "새로운 LCC가 출범하면 소비자의 혜택 증진보다는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므로 신규 항공운송사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형항공사의 국제항공운수권 독점으로 LCC의 국제선 시장점유율이 10%를 조금 넘는 실정"이라며 "최근 해외 LCC의 한국시장 진출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항공사의 한국시장 진출에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국적사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분할,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부족, 국제항공운수권과 슬롯 부족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LCC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에어부산이 있고 이를 통해 증편하면 되는데 또 다른 LCC를 만든다는 것은 국적 LCC의 성장을 막은 뒤 경쟁력을 상실해 부도가 나면 다시 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올해 상반기 제2 LCC를 설립하고 하반기에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류광희 전무를 서울에어 대표이사로 하고 14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새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나는 제2 LCC 설립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전체 항공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외국의 메이저항공사도 자회사가 여러 개"라며 "외항사가 한국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국적사가 파이를 가져오려면 더 많은 플레이어가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와 LCC 양측의 논리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승객·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에서 제2 LCC에 대한 면허 신청을 하면 면허발급위원회를 구성해 발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에르미타주 박물관 후원, 6년 더"

대한항공, 연장 협약식 개최

대한항공이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 후원을 6년 연장한다.

대한항공은 20일(현지시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헤리티지 스테이트 어셈블리 홀'에서 후원 연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성의 대한항공 CIS지역본부장과 피오트로브스키 미카일 에르미타주 박물관장 등이 참석했다.

사측에 따르면 후원 연장은 2009년 양사가 맺은 협약이 만료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전 세계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결정됐다.

대한항공은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한국어 포함 안내가이드 지도, 박물관 특별전 포스터 제작 등 박물관 활동을 향후 6년간 연장 후원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에르미타주박물관 작품 해설용 오디오가이드 기기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무기한 후원계약을 맺고 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박물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리타의 성모', 고갱의 '과일을 쥐고 있는 여자'를 비롯해 모네, 밀레, 르누아르, 세잔 등 예술가들의 걸작 290만점이 전시돼 있다.

대한항공은 에르미타주박물관 외에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등 세계적인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후원하고 있다.

/채윤정기자

20일(현지시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송성의 대한항공 CIS지역본부장(왼쪽 두 번째)과 피오트로브스키 미카일 에르미타주 박물관장(오른쪽 두 번째)이 대한항공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후원 연장 협약을 맺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LG 중소벤처기업 지원 본격 활동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가동

LG와 충청북도가 함께 출범시킨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충북 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지원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LG는 24일 특허 등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중 50여 업체를 선정해 화장품 산업 지원 설명회, 바이오멘토단 설명회 등 K뷰티·K바이오 사업 지원활동을 잇달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LG와 충청북도는 지난달 초 청주 오창에 혁신센터를 열었다.

특허·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뷰티·바이오·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에 LG의 기술·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 중소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충북 혁신센터는 화장품 효능 분석기가 설치된 화장품원료평가원(lab),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육·지원하는 공간인 프로젝트룸 등 기업지원시설 재정비를 마쳤다.

또 센터에 새롭게 마련된 6개의 프로젝트룸에 들어갈 입주 기업을 다음달 초 공개 모집한다.

현재 씨원라이프테크, 화우보, TRC 등 인근 스타트업(start up·창업) 기업에 시설을 개방해 초기 사업 아이디어 개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등 LG 계열사에서 파견돼 상주하는 특허·금융·법무 전문가 등 전문위원들의 도움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윤준원 충북혁신센터장은 "충북지역의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혁신센터를 통해 발굴·육성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LG와 함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아시아나항공, 6월부터 인천~로마 운항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6월 30일부터 인천~로마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탈리아 수도인 '역사의 도시' 로마 취항을 통해 유럽노선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참고: 아시아나항공 인천~로마 운항 스케줄 [illegible]

노선	편명	출/도착시각	운항요일	기종(좌석수)
인천-로마	OZ 561	1300/1845	화·목·토	B777-200 [illegible]
로마-인천	OZ562	[illegible]	화·목·토	

이 노선은 화, 목, 토요일 오후 1시(한국시각)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6시 45분(현지시각)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도착한다. 로마에서는 오후 8시 15분(현지시각)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 2시5분(한국시각)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신규취항을 통해 고객들이 유럽을 방문할 때 이용 가능한 항공사의 스케줄 선택의 폭이 넓어져 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마는 고대 로마의 중심이었던 '포로 로마노'와 함께 '콜로세움'과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등 유명 관광 명소들이 위치해 있어 여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소리기자

현대제철, SPP율촌에너지 인수 수순

현대차그룹 의존 숙제

현대제철이 또 한 번 몸집을 불린다. 주력업인 봉형강, 판재류를 뛰어넘어 특수강, 단조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2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단조제품 전문업체인 SPP율촌에너지 인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대제철은 다음 주 중 SPP율촌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한 조건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열사인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와 함께 동부특수강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에 하는 작업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열린 본입찰에서 SPP율촌에너지 인수가로 1000억원을 써냈다. 그러나 본입찰 이후 실사한 매도자 실사에서 SPP율촌에너지의 최저 매각기준 가격이 1200억원으로 책정돼 채권단과 현대제철 간의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오전 인천시 중구 ... 스오늘에서 열린 현대제철주식회사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수가격이 올라도 현대제철의 인수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말 별도 기준 현대제철의 현금성자산과 현금영업이익(EBITDA)창출 규모는 각각 8117억원, 2조6052억 원에 달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제철의 SPP율촌에너지 인수에 대해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SPP율촌에너지 인수를 통해 조선용 후판 부문의 시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SPP율촌에너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설비는 현대제철에 없던 것들"이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고부가 제품생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패키지처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중국발 철강 수입 등으로 인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결기준 매출액 16조7623억원, 영업이익 1조4911억원을 기록했다. 고부가 제품의 매출 증가 덕분에 영업이익은 무려 95.5% 급증했다. 영업이익률로는 처음으로 포스코도 앞질렀다.

현대그룹의 도움이 컸다. 현대제철의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2011년 24.5%로 급증했다. 지난해 39% 수준에 달한 내부거래 비중은 올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의 몸집 불리기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며 현대제철의 계열사 강제구매 비계열사 차별금지 등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과 현대 기아자동차가 원료에서 완성차까지 수직계열화해 CHQ와이어(냉간압조용선재)와 CD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경우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특수강 1위 업체인 세아베스틸은 해외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30%가량을 현대 기아차에서 올렸다. 현대제철이 특수강 생산을 확대할 경우 현대 기아차의 특수강 수요 물량이 현대제철로 옮겨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현재 인천공장에 수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은 13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방침으로 "통합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를 밝히기도 했다.

/정소리기자 ...@metroseoul.co.kr

KT, 올레매장 인테리어 새 단장 '최고의 경험 선사' KT는 고객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식 유통 채널인 올레매장을 새 단장했다. KT는 새로 개설되는 올레매장에 신규 인테리어를 적용해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새단장한 올레매장 직원들이 1호 매장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KT 제공

LGU+, 대용량 콘텐츠도 글로벌하게

'글로벌 CND 서비스'

LG유플러스는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세계에 16개의 노드(통신망의 분기점이나 단말기의 접속점)를 동시 오픈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대용량 콘텐츠를 끊김 없이 전송할 수 있는 '글로벌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CDN 서비스란 영상이나 게임 클라이언트 등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LG유플러스의 '글로벌 CDN'은 글로벌 서버 분산기능(GSLB)을 통해 국가별 부하를 분산함에 따라 대용량의 콘텐츠도 전세계 어디라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해외 16개 노드 오픈과 자체 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CD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특히 기존 국내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 없이 해외 사업자의 플랫폼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단순 인프라 확보가 아닌 자체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까지 직접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기업이 콘텐츠의 해외 배포를 위해서 국내 CDN과 글로벌 CDN을 각각의 별도 사업자를 통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 없이 LG유플러스의 글로벌 CDN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외 콘텐츠 배포부터 통합 관리까지 한번에 할 수 있다.

/... 기자

SKT, 대구한의대 학생역량강화시스템 구축

SK텔레콤과 대구한의대학교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역량강화시스템(SIMS)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23일부터 재학생에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SIMS는 기존의 학사행정 시스템, 교내 업무 프로세스와 연동돼 재학생들이 본인의 학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학교는 SIMS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산업체 현장실습·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취업관리 프로그램', 평생 교수 멘토링·진로적성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상담관리 프로그램, 학생의 진료 관리·기초체력 검사 등을 지원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SIMS에 국내 대학 최초로 적용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과 연계, 재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과 사상체질감별, 건강상황에 따른 약과 운동 강습, 이침·부항을 이용한 한방 요법과 물리치료 요법, 영양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식사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구한의대학교 학생들이 SK텔레콤과 대구한의대학교가 개발한 학생역량강화시스템(SIMS)의 사전설명회에 참가해 설명을 듣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 공공 기업솔루션부문장은 "이번 대구한의대학교에 구축한 SIMS는 그간 쌓아온 SK텔레콤 스마트 캠퍼스 구축 노하우의 결정체"라며 "앞으로도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 ...

조남성 사장, 협력사와 함께 '점프업'

조남성 삼성SDI 사장은 협력사 경쟁력 확보 지원, 미래기술 협력, 공정 거래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3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삼성SDI는 2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노블카운티에서 SSP(Samsung SDI Partnership association)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실천 과제를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SSP 총회는 삼성SDI와 협력회사의 대표들이 모여 전년도의 상생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다.

이번 총회에서는 SSP회장인 삼아프로테크 이상원사장을 비롯 40여 명의 협력사 대표들과 조남성 삼성SDI 사장, 전략구매팀장 황성록 전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SDI와 협력사 대표들은 이날 총회에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사장은 이날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해온 협력사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올해도 적극적인 상생 협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올해부터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협력사의 제품 수주에서 출하까지의 과정을 개선하는 프로세스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사장은 "삼성SDI와 협력회사는 지속 성장에 나갈 공동체"라며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전한 협력 관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리기자

봄바람 부는데… 개성공단 패션기업들 '울상'

北, 임금인상 일방통보… 2013년 폐쇄사태 재연 우려도

지난달 북 측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오자 입주 기업의 60%에 달하는 패션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특히 봄 시즌을 맞은 패션 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업계는 시즌에 따른 반응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제품 수주에 지장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4개 전체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패션 관련 기업은 73개로 60%에 해당한다.

패션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임금 인상률 5%나 5.18%이냐보다는 북 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폭을 통보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큰 진통없이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나설 수 없는 문제로 지난 2013년의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개성공단내 입주기업들은 큰 동요없이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도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동요없이 일해왔다"며 "이번 사태로 공장 측과 통화를 했는데 차질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2013년처럼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해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앞 모습. /뉴시스

지난달 북측은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북 측이 요구한 인상폭은 5.18%로, 정부는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 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인 5% 안에서만 인상폭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0815@metroseoul.co.kr

반하트 디 알바자 '서울패션위크' 성료 반하트 디 알바자는 지난 20일 DDP 아트홀 1관에서 개최된 서울패션위크에서 2015 F/W 컬렉션무대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델 장윤주가 탑엑센 뮤즈로 나서며 브랜드와 두번째 만남을 가져 화제를 모았다. 런웨이에 오른 장윤주는 반하트 디 알바자의 독특한 감성을 담은 재킷을 레이어드 스타일로 멋스럽게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손진영기자

'황제주의 힘'… 서경배 회장 주식자산 첫 8조원 돌파

'황제주'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52·사진)의 보유 상장주식 평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치는 20일 종가 기준으로 8조18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5조8845억원보다 39% 2조2978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322만1000원으로 작년 말보다 46.4% 102만1000원 올랐다. 아모레G는 37.3% 오른 137만원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우와 아모레G우는 각각 167만4000원과 62만5000원으로 55.1%, 29.9% 상승했다.

다른 재벌들과 비교하면 서경배 회장의 상장주식 가치 상승은 더욱 독보적이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주식 자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3620억원 못 미치지만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격차는 2조7000억원이나 벌어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상장주식 가치는 8조5443억원으로 1.3%(184억원) 감소했고 정몽구 회장의 주식 자산은 5조4703억원으로 6.1%(3565억원) 줄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의 보유 상장주식 평가액도 2조4630억원씩으로 작년 말보다 3.0%(751억원) 감소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도 2조4589억원으로 37.7%(1조4898억원) 줄었다.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는 유통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기로 했다.

비리 얼굴 TV홈쇼핑… 재승인 내달 윤곽

TV홈쇼핑업계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의 윤곽이 다음달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해 홈쇼핑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번 심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6월 사업 승인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 등 3사에 대한 재승인 윤곽이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홈쇼핑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으며 사업권을 연장하고 있는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각각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기존 승인이 만료된다. 이들 3개사는 재승인 심사를 위해 지난 6일 각종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되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3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 약 사흘간 심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지금까지 정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퇴출당한 홈쇼핑 업체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홈쇼핑 업계의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업계에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본보기 퇴출을 감행할 수도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처럼 정부가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은 작년 홈쇼핑 업체 임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검찰에 적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24명의 비리가 적발되며 감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 전 대표는 납품업체로부터 홈쇼핑 판매와 백화점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두 업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가 퇴출당할 경우 고용 직원과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는 조건부 승인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홈쇼핑 업계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

이마트 '희망 마을' 전국에 145곳 조성

이마트는 연 1회 진행했던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올해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전국 각지에 희망마을을 만든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마을은 이마트 희망나눔 프로젝트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국 각 지역에 마을벽화 그리기, 경로당·마을회관 개보수, 공원 화단 가꾸기, LED전구 교체, 도배장판 교체 등 공공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마트는 3월부터는 1자 활동의 일환으로 주민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 프리미엄 파주 아울렛 '몽블랑' 오픈

롯데백화점은 오는 24일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파주점에 국내 아웃렛 최초로 명품 브랜드 몽블랑 매장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탈리아 피렌체·중국 상하이·베이징에 이은 4번째 아웃렛 매장으로 매장 규모는 135㎡다.

파주점에서는 시즌이 지난 제고 물량을 모두 들여와 만년필·시계·가죽잡화 등을 정상가 대비 30~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가방·지갑 등 가죽 제품의 경우 정상가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국내 백화점 매장에 없는 실버 주얼리 다이아몬드 등 액세 주얼리 컬렉션도 선보인다.

'더 건강한 햄' 스팸급 메가브랜드로 키운다

CJ제일제당, '더 건강한 브런치 슬라이스' 출시
2020년 매출 2000억 목표… 저염 제품군 강화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하 CJ)이 '더 건강한 햄'을 메가브랜드로 키우며 냉장햄 시대를 연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일 진천 육가공공장에서 이노베이션 세미나를 열어 2020년까지 '더 건강한 햄' 매출을 2000억원으로 올리고 쉐이빙 기술을 도입한 저염 제품 카테고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냉장햄 전체 시장을 현재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대까지 키운다는 목표다.

곽정우 CJ제일제당 신선마케팅담당 상무는 "냉장햄 시장은 우천가정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며 또 다른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더 건강한 햄을 2020년까지 2000억원대 브랜드로 키워 스팸급 메가브랜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초박 쉐이빙 기술 적용

CJ제일제당은 이날 세미나에서 신제품 '더 건강한 브런치 슬라이스'의 생산공정을 공개했다. '더 건강한 브런치 슬라이스'는 초박(Ultra thin) 쉐이빙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슬라이스햄이다. 고기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면도를 하는 것처럼 얇게 깎는 기술로 0.8㎜ 두께의 초박 슬라이스를 구현했다.

브런치 문화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쉐이브드 형태의 햄이다.

포장 역시 기존처럼 차곡차곡 쌓아 진공상태로 만들기보다는 여러 겹의 슬라이스햄을 물결 무늬로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햄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 또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CJ제일제당은 20억원을 투자해 새 슬라이스 기기를 도입했다.

냉동 상태의 원료육을 해동하는 과정에서 육즙이 빠지는 것을 막고자 23도 이하의 미스트를 분사하면서 녹이는 '저온만만해동기술 시스템으로 열을 공급해 녹이는 저온텀블러해동기술'을 사용했고 우천가 기술도 적용했다. 1조원 시장인 브런치 문화에 맞춰 개발된 제품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150억원 규모다.

◆ 저나트륨 제품군 확대… 냉장햄 시장 1조2000억원대로 키운다

CJ제일제당이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냉장햄을 내놓은 것은 현재 8000억원 규모인 냉장햄 시장이 5년 안에 1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은 햄과 라이프스타일의 접목을 통해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캠핑족과 수제맥주 시장을 메가 트렌드로 잡고 저나트륨 제품군을 늘려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곽정우 상무는 "국내 냉장햄 시장이 2000년대 들어 유성장기를 논란으로 정체됐으나 '더 건강한 햄'의 출시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브런치, 수제맥주 등 서구식 문화와 어우러지는 신제품군으로 2020년에는 1조2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더 건강한 브런치 슬라이스' 이후에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후속 제품군을 준비 중이다. 유럽식 수제맥주집이 주류업계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수제맥주와 어울리는 '더 건강한 천연장후랑크'를 오는 7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저나트륨 제품군을 확충한다.

CJ제일제당 직원이 냉장햄 '더 건강한 브런치 슬라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CJ제일제당 더 건강한 햄 브랜드 연도별 매출>

국산 주꾸미 30% 할인 판매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사전 계약을 통해 26일부터 어획량 감소로 몸값이 뛴 국산 주꾸미를 시세 대비 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지난 달부터 국산 주꾸미 물량 확보를 위해 서천, 보령 등 주꾸미 주산지를 비롯해 전국 산지를 발로 뛰며 총 10톤 가량의 국산 주꾸미 물량을 확보했다.

세븐일레븐, PB동교짬뽕 2탄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PB교동직화짬뽕'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동직화짬뽕은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10월 선보인 후 인기를 끌고 있는 교동짬뽕에 이어 출시하는 두 번째 상품으로 직화 볶음향과 진한 돈골 국물 맛을 강조했다.

세븐일레븐 교동짬뽕은 전국 5대 짬뽕집으로 알려진 강릉교동반점과 업무 협약을 맺고 현지의 짬뽕 맛을 구현한 '지역 맛집 연계 상품'이다.

뚜레쥬르, 에그 샌드위치 2종

뚜레쥬르는 '에그쉬림프 샌드위치'와 '에그&튜나 모닝롤 샌드위치' 등을 선보였다.

'에그쉬림프 샌드위치'는 고소한 곡물빵 사이에 계란과 새우를 버무린 속과 아삭한 질감이 나는 채소인 버터레티스를 넣었다.

또한 '에그&튜나 모닝롤 샌드위치'는 순우유 모닝롤빵 세 개에 각각 계란과 참치를 버무린 필링을 넣어 판매한다. 권장 소비자가는 각 세트당 4800원이다.

더페이스샵, 하얀 수분 크림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톤을 개선시키는 '블랑클라우딩 화이트 수분 크림'을 출시했다.

블랑클라우딩 화이트 수분 크림은 구름의 생성 원리를 적용한 클라우드 공법으로 개발됐다. 진공·가열·냉각 과정을 거친 풍부한 수분 입자를 그물망처럼 결합, 수분감으로 꽉 찬 탄력 있는 구름 제형을 개발했으며, 피부에 바르면 제형에 즉각 녹아 마치 물처럼 피부에 흡수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호텔업계 '와인'에 빠지다

호텔업계가 봄을 맞이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로비라운지&바는 평일 저녁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그랜드 페피어외'를 진행한다. 월~금요일 모두 6시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오후 7시30분부터는 무대에서 연주되는 라이브 음악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뷔페로 준비되는 안주 메뉴 외에도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인도식 커리, 미니 스테이크, 수제 소시지와 감자, 그릴 치킨 등 4종류의 따뜻한 요리가 즉석에서 조리돼 테이블까지 제공된다.

롯데호텔서울은 4월 15일부터 노천 카페 클럽스 프라자를 운영한다. 롯데호텔의 루시킨 클라자에 위치한 클럽스 프라자에서는 와인 9종을 비롯해 맥주와 칵테일도 선보일 예정이다. 와인은 스파클링에서부터 레드·화이트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상품 위주로 구성했다.

알로프트 서울 강남 호텔은 매일 모두 6시부터 무제한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와인 플라이즈를 이달부터 누크 레스토랑과 W XYZ바에서 진행한다. 17종의 와인과 다양한 안주를 무제한 즐길 수 있으며 매주 목~토요일에는 신인 밴드의 라이브 공연도 열려 분위기를 돋운다. 가격도 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바 루즈'는 20~30여 종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와인 뷔페를 매주 화~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호주·칠레, 미국 등지에서 생산한 다양한 와인이 골고루 준비된다. 아체스틱 샐러드·갓구운 빵·훈제연어·스시 등의 안주가 뷔페로 준비돼 한 끼 식사로 즐기기에도 충분하다고 호텔 측은 전했다.

여의도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의 파크카페는 매주 목요일 모두 6~9시 6종의 와인을 무제한 즐길 수 있는 비노템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등심스테이크가 주 요리로 준비되며, 애피타이저·치즈 등이 뷔페로 제공되는 세미 뷔페 형식이다.

제약계, 주총서 수장 대거 물갈이

셀트리온 13년만에 전문 경영체제 전환… 종근당·유한양행 등도 CEO 교체

제약업계의 수장들이 올해 주총에서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대거 교체됐다.

셀트리온은 설립 13년 만에 오너 경영체계에서 전문 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20일 인천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를 서정진(58) 회장에서 기우성(54)·김형기(50) 사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창립자 서 회장은 2002년 설립 이후 맡았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앞으로 이사회 회장으로 그룹의 미래비전과 중장기 전략 구상, 해외네트워크 강화 등에 주력하게 된다.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은 '혁신의 시기가 완료되고 수성의 시기로 전환되면 전문경영인체제로 바꾸겠다. 바이오시밀러가 완성되고 안정적 성장단계로 접어드는 2015년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밝혔다"고 설명했다.

공동 대표인 기우성 사장과 김형기 사장은 모두 대우자동차 출신의 셀트리온 창립멤버다. 기 사장은 생산·품질·임상허가 부문을, 김 사장은 경영관리와 재무·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도 이달 중 주총과 이사회를 열고 홍승서 사장과 김만훈 사장을 각각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종근당도 같은 날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영주(50) 씨를 선임했다.

김 신임사장은 고려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룸아일랜드대학원에서 면역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3년 한독을 시작으로 스미스클라인비참, 머크, 노바티스 등에서 근무했다. 2007년부터는 머크세로노 부사장을 역임했다.

사진 시계방향으로 셀트리온 기우성·김형기 대표, 종근당 김영주 대표, 유한양행 이정희 대표, 대웅 윤재춘 대표, 부광약품 유희원 대표.

유한양행은 서울 대방동 본사에서 제9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제21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정희(63)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 신임사장은 1951년 생으로 영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유한양행에 입사했다. 병원영업부장(이사), 유통사업부장(상무), 마케팅 홍보 담당 상무(상무이사), 경영관리본부장(전무이사, 부사장),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대웅은 신임 대표이사로 윤재춘(54)부사장을 선임했다. 윤 신임 대표는 서울디지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1985년 대웅제약에 입사해 공장관리센터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난영(73) 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고문직을 맡게 됐다.

부광약품은 유희원(52)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유 대표는 김상훈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공동 대표를 맡게 된다. 유 대표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1997년 미국국립보건원(NIH) 박사후과정을 거쳐 1999년부터 부광약품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내 상장 제약사 중 첫 여성 전문경영인이다.

SK케미칼 제약사업 부문을 관장하는 라이프사이언스 비즈 대표에는 한병로(65) 부사장이 선임됐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고객 맞춤 설계 메리츠화재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고객의 수요에 맞춤설계가 가능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M-Basket1501)(이하 M-Basket1501)이 인기를 끌고 있다.

M-Basket1501는 종합건설탕 상품으로 합리적인 유족보장, 암케어패키지, 간병인 현물급부 등을 고객이 원하는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고객의 장해 발생 시 소득이 끊기는 것에 대비한 보험료납입 부담이 완화됐다. 고도후유장해 생활자금특약을 통해 고도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월납기준 월인보험료의 두 배를 매월 만기까지 지급한다.

최대 4단까지 복층설계가 가능해 유족보장 필요시기에 합리적인 보험료로 고객의 사망보험금 설계가 가능하다. 자녀가 모두 성장해 독립했을 때는 보험금을 적게 설계하고 교육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중년기에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암보험의 보장도 강화했다. '암케어 패키지'는 암진단비, 암검진서비스, 암사망에 대한 보장을 통합해 제공한다. 이차암 발병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말기암진단비도 추가해 4기 암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기존의 3대 질환에 허혈심질환 7대질환진단비를 추가해 중증질환의 보장 공백도 해소했다.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보장'에 가입하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수술 재택간병인지원금 특약'에 가입하면 수술로 인해 4일이상 입원시 퇴원후에도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위해 주8시간, 최고5회까지 재택간병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5회 간병인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저축보험을 결합해 수익률을 높였다. 자동차보험도 2회 자동갱신 약정형 상품으로 매년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크게 줄였다. 장례용품지원서비스, 연계가입 할인혜택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김희식기자 khs84041@

강강술래 "봄나들이 간편하게 떠나세요"

육포·한우떡갈비 등 최대 50% 파격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나들이나 여행, 캠핑 등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육가잠선물세트(500ml/7팩/14인분)는 2만9000원, 갈비탕선물세트(500ml/7팩/14인분)는 3만95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사골곰탕(350ml/2팩)을 덤으로 준다.

같은 기간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나들이에 잘 어울리는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를 40%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힐링한우떡갈비세트(360g X3박스)도 50% 할인된 3만3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3만5700원)와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4만2000원), 국내산 돼지고기 70%에 흑임자를 접목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9400원)도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김학선기자 wh0720@

스포츠쿠페 '렉서스 RC F' 서울모터쇼서 공개

운전자는 폭발적 배기음을 · 외부선 전기차 같은 조용함을

가슴 누근거리는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 의 대표모델인 렉서스 RC 350 F 스포츠(SPORT)와 RC F가 다음달 서울 모터쇼에서 전격 공개한 후 국내 판매에 돌입한다. 렉서스의 쿠페 SC430이 단종된 후 오랜만에 나온 레이싱 쿠페(Racing Coupe · RC)다.

렉서스는 2007년 렉서스 IS 모델을 바탕으로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 IS F를 내놓았다. 'F'는 일본을 대표하는 서킷 '후지 스피드 웨이'(Fuji Speed Way)를 의미한다. 독일과 고성능차와 경쟁을 위해 달리기 본능에 충실한 다이나믹 퍼포먼스 드라이빙 을 렉서스의 새 브랜드 전략으로 추가한 이후 첫 결과물이었다. 'F'는 렉서스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자리매김됐다.

IS F 출시에 이어 렉서스는 F SPORT 패키지와 최고의 주행 성능을 구현한 슈퍼카 LFA를 선보였다. F SPORT 패키지는 그물 모양의 메쉬 그릴로 대표되는 외관과 전용 인테리어 계기판 그리고 스포츠 튜닝을 가미했다. 일상 속에서 렉서스 퍼포먼스를 즐겨보자는 콘셉트다. 현재 ES와 LS를 제외한 전 라인업에 F SPORT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다.

렉서스 RC 350 F SPORT

서울모터쇼에서 출시되는 RC 350 F SPORT는 레이싱 쿠페라는 스포츠 드라이빙 모델에 F SPORT패키지를 가미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개성있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인, 동급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V6 3500cc 직분사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단계 돼 강인한 힘을 내뿜는다. RC 350 F SPORT는 F SPORT 패키지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IS F에 이어 LFA의 개발에 성공한 렉서스는 쿠페를 특징으로 하는 신형 F의 개발에 착수해 RC F로 결실을 맺었다. V8 5000cc 자연흡기엔진이 장착된 RC F는 467마력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4.5초,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등 수퍼카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강렬한 디자인과 마력을 갖췄지만 외부는 조용하다. 그러나 실내는 딴 세상이다. 웅장한 8기통 엔진 사운드와 비명처럼 터져 나오는 엔진 브레이크 소리는 압권이다. 사운드의 비밀은 실제 배기 사운드를 증폭해서 인공적으로 배기음을 만드는 렉서스의 첨단 '액티브-사운드-콘트롤' 기술이다. 이 기술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스포츠카의 배기음이 드라이버에겐 즐거움이지만 외부에는 거슬리는 소음이기에 RC F는 일상부터 서킷주행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새벽 1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면 렉서스의 첨단 기술을 장착한 RC시리즈가 제격이다.

렉서스는 한국에서 '가슴 두근거리는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RC 350 F SPORT와 RC F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판매 확대보다는 진정한 렉서스 'F 마니아' 계층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렉서스가 추구하는 브랜드의 새로운 철학을 보다 강렬하게 한국시장에 각인한다는 전략이다.

/김태훈기자 fun@metroseoul.co.kr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인 북경현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심천시에 위치한 대운체육관에서 설영흥 중국전략담당 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회사 관계자와 중국 정부인사, 딜러 대표, 기자단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형 신형 쏘나타'의 신차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 신형 쏘나타로 中 공략

동급 최고 주행성능 확보

현대자동차가 중형 세단 '신형 쏘나타'로 세계 최대 중국 중형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인 북경현대는 20일 중국 광둥성 심천시에 위치한 대운 체육관에서 중국 정부인사, 딜러 대표, 기자단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형 신형 쏘나타(LF 쏘나타)'의 신차발표회를 갖고 판매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생산 차종 중 최상위 모델인 중국형 신형 쏘나타를 연평균 12만대씩 판매해 중국 중형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형 신형 쏘나타는 '누우 2.0 MPI 엔진', '세타II 2.4 GDI 엔진', 엔진 다운사이징 추세에 맞춘 '감마 1.6 터보 GDI 엔진'까지 총 세 개의 가솔린 모델로 운영된다.

터보 모델에는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7단 DCT(Double Clutch Transmission)를 장착했다.

육각형 그릴로 전면부에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후면부는 볼륨감을 살려 안정감을 극대화했다.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국내 판매 중인 신형 쏘나타의 가로바 형태를 그물형으로 새롭게 변경해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

현대차는 중국형 신형 쏘나타 고객을 위해 ▲일대일 전담 VIP 서비스 ▲방문점검 서비스 ▲3년 9회 무상점검 서비스 ▲흠누후 서비스 ▲24시간 무료 긴급구난 서비스 ▲공항 VIP 라운지 무료이용 등 '6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120개 도시의 500개 영화관 광고 상영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후원을 통한 주요 경기 쏘나타 브랜드 노출 ▲생생지 비교시승 확대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중국형 신형 쏘나타'를 알릴 예정이다. /김소희기자 [illegible]

포효하는 사자의 힘… 힘없는 SUV는 사절

시승기

BMW 'X3 30d M'

국내 레저활동이 늘면서 험중은 4륜구동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소형 SUV(배기량 1.6~2.0ℓ)가 인기지만 산악을 박차고 올라가기엔 어딘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상당수 운전자가 지적하는 부분이 가속시 땅을 박차고 나가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BMW 'X3 엑스드라이브 30d M 스포츠 패키지'는 이같은 소형 SUV의 2%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델이다. 적당한 차체에 힘은 넘쳐나지만 도심주행에도 적합하게 소음과 진동이 적다.

이 모델은 트윈파워 터보 디젤 3.0ℓ 엔진을 달아 최고 258마력, 최대 토크 57.1kg·m의 성능을 뿜어낸다. 소형 SUV와 비교하면 심장을 하나 더 달고 있는 셈이다. 스포츠카 못지 않은 출력을 자랑한다. 정지 상태에서 5.9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한다.

실제 달려보면 X3 30d의 가속감은 운전자에게 자신감을 준다. 스포츠+ 모드에 놓고 가속페달을 밟으면 마치 한 마리의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듯 한 생각이 들 정도다.

BMW의 4륜 구동 시스템인 '엑스드라이브(xDrive)'는 축노와 노면 등 주행상황에 맞게 자동제어 해 운전자의 드라이빙을 더 안전하게 해준다. 엑스드라이브는 보통 때는 앞뒤 구동력이 40:60으로 배분되다 주행 상황에 따라 앞뒤 100:0에서 0:100까지 동력을 배분한다.

연비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정속주행을 하면 ℓ당 17km도 가량 나온다. 스포츠 모드에 놓고 신나게 달리면 ℓ당 11km대로 떨어지지만 운전자의 습관에 따른 것이기에 힘에 비해 괜찮은 편이다.

실내를 보면 센터페시아(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조장치 등이 있는 곳)를 고광택 블랙 패널로 마감했고, 알루미늄 포인트가 멋스럽다.

편의사양을 보면 다이얼 패드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워려하거나 지도 크기를 키우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드라이브 터치 컨트롤러가 들어갔다. 모니터는 구동력이 앞 뒤로 배분되는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기능도 있다.

가격은 X3 엑스드라이브 30d 7590만원이며, 30d M스포츠 에디션은 8390만원이다. /김태훈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지니 타임' 태국에선 망쳤어요

극강 퍼포머 증명 JYJ 김준수

아시아투어 연 방콕 성황리에
3집 타이틀곡 플라워 랩 첫 선
"새 노래 무대는 팬에 대한 예의"

그룹 JYJ 김준수(XIA)가 태국 팬들 요청에 정규 3집 타이틀 곡 '플라워' 랩을 처음 선보였다.

김준수는 콘서트마다 '지니 타임'을 마련한다. 관객의 소원을 직접 들어주는 시간이다. 6년 전 일본 공연에서 처음 시작된 후 김준수 콘서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21일 '2015 XIA 세 번째 아시아 투어 콘서트' 연 방콕 ―플라워'에서 김준수는 타블로가 부른 '플라워' 랩을 불러달라는 요구에 "영상을 찍어 올리지 말아 달라. 이 순간만큼은 아티스트가 아닌 동네 코미디를 조른다고 생각해 달라"며 서툴게 랩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그동안 지니 타임을 하면서 망친 적이 없었다고 자부했는데 오늘 실패했다"며 "힙합을 좋아할 뿐 수준 높은 랩을 들려주기에는 시간이 이미 많이 흘러 버렸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노래를 하지 않고 랩을 하고 싶지만 시간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노래를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수는 이날 신곡 11개와 정규 1·2집 수록 곡을 2시간 동안 열창했다. 콘서트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쇼로 콘서트는 완전 새로운 형태라며 "새 앨범 수록 곡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다. 그에 맞춰서 새로운 퍼포먼스도 구성하고 기존 음악도 편곡했다. 신선할 것"이라고 공연을 소개했다.

"앨범과 콘서트 곡 순서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 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성했어요. 공연은 방송에 출연해 곡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하게 됐죠.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한두 곡만 발표해서 콘서트를 하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티켓 가격을 주고 제 공연을 믿고 오는 관객들을 배신하는 거죠. 아쉬워하는 팬을 만족시키려면 새로운 노래,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예의라고 봅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음악밖에 없는 거 같아요."

김준수는 S자 틀 동작이 눈에 띄는 '언크레더블'(2013)로 공연을 시작했다. 이어 '익스승'(2015), '꿀리바이'(2012) 등에 섹시한 웨이브가 돋보이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휴점장으로 갈아 입고 다시 무대에 올라 '러브 유 모어', '리치', '나의 밤'을 부르며 분위기를 감미롭게 전환했다.

뮤지컬 '인 라이프'와 뮤지컬 '드라큘라'의 넘버 '러빙 유 킵스 미 얼라이브' 등 등에선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김준수의 역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뮤지컬 '인 라이프'의 경우 김준수가 연기했던 인물들이 담긴 화면과 함께 그의 댄스와 우산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공연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공연은 '플라워'로 절정에 다다랐다. 만남으로 콘서트 준비에 열중하는 평소 모습이 담긴 영상이 긴박하게 전환되면서 '플라워' 도입부 특유의 음산하지만 슬픈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는 "공연 안에 있는 작은 공연"이라며 "기존 댄스 곡과 다르게 조용하게 마무리된다. 안무도 악기 바나바나에 맞춰 춤을 춘다. 멤과 호흡하기 보다는 곡의 메시지를 나 혼자 표현한다. 관객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느낀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고 '플라워' 무대 콘셉트를 설명했다.

콘서트는 '사랑술', 'F.L.P'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김준수는 방콕에 이어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에서 공연한다.

/방콕=탄효천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star bag

악역으로 브라운관 복귀

연정훈이 오는 5월 말 방송 예정인 SBS 수목드라마 '가면'으로 2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여자와 아무 소건 없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연정훈은 명석한 두뇌와 수려한 외모를 가진 악역 민석훈 역을 맡아 수애, 주지훈과 호흡을 함께 맞춘다.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

모델 **박환희**가 휴종현, 신승관 등이 소속돼 있는 위드메이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CF 매거진 등을 통해 이선이라는 이름으로 모델 활동을 해온 박환희는 위드메이에 새 둥지를 틀고 본명으로 연기자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속사 측은 "박환희가 다양한 매력을 마음껏 펼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컴백 앞두고 티저 영상 공개

컴백을 앞두고 있는 그룹 엑소가 멤버 **시우민**의 컴백 티저 영상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카이, 타오, 찬열의 티저 영상에 이어 공개된 시우민의 티저 영상은 엑소의 새 앨범 수록곡이 사용돼 눈길을 끌었다. 엑소의 정규 2집 '엑소더스'는 오는 30일 발매되며 다음달 2일부터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할 예정이다.

'런닝맨' PD와 의리 지켜

이광수가 22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 스페셜 MC로 첫 음악방송 MC에 도전했다. 국내외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이광수는 '런닝맨'으로 인연을 맺은 조효진 PD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인기가요' 스페셜 MC 제안을 수락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광수는 현 MC인 황광희, 김유정과 호흡을 맞추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한국의 전통 음악 '아리랑' 연주하고 싶어요"

'유튜브 스타' 피아노 가이즈 다음달 20일 첫 내한 공연 "한국적인 무대 선사할 것"

"첫 내한공연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크로스오버 그룹 피아노 가이즈(The Piano Guys)가 다음달 20일 첫 내한공연을 앞두고 진행한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공연에서 정말 한국적인 것들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아노 가이즈는 피아니스트 존 슈미트, 첼리스트 스티븐 샤프 넬슨, 비디오 엔지니어 폴 앤더슨, 스튜디오 엔지니어 알 밴 더 빅으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그룹이다. 유타주에서 '피아노 가이즈'라는 이름의 피아노 가게를 운영하던 폴은 가게를 방문한 존의 피아노 연주에 반해 팀을 결성했다. 이후 스티븐과 알이 합류하며 현재의 팀이 꾸려졌다.

"일부러 팀을 만들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됐죠. 신이 우릴 한 그룹으로 만든 데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깊은 신앙심이 느껴지는 답변은 멤버들의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쉬게 납득할 수 있다. 스티븐과 알은 한 때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았다.

"한국에서 지냈을 때 한국 사람들과 즐거운 만남이 꽤 많았어요. 물론 한국말도 잘 하고요. 한국은 정말 쿨(Cool)한 나라예요. 피아노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특히 솔로 피아노 아티스트 이루마 씨를 존경합니다."

은밀처럼 팀을 꾸린 피아노가이즈는 동네 밴드에 머물지 않았다. 이들은 클래식은 물론 보이밴드 원디렉션(One Direction)의 '왓 메이크 유 뷰티풀(What Make you)', 데이비드 게타(David Guetta)의 '티어타니움(Titanium)' 등 인기팝송을 감각적으로 재해석한 영상으로 유튜브의 인기스타가 됐다. 이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수는 5억 건을 웃돌며 구독자는 총 300만 명에 이른다.

"우리는 클래식 음악이 오늘날 모든 음악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세대에게 클래식을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어린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음악, 즉 팝송을 클래식과 섞는 것이 클래식을 소개하는 데 쉬운 방법이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팝을 어른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의 음악이 연령, 국적, 성별을 뛰어 넘어 모든 것을 포함하길 바랍니다."

소니뮤직

아티스트들의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에서 최근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이들의 또 다른 목표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의 만리장성과 브라질의 예수상에서 촬영했습니다. 최근엔 바흐의 클래식과 콕스5의 펑크 소울이 믹스된 곡을 만들었는데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죠."

이번 내한 공연에서 이들은 새로운 음악을 시도할 계획이다.

"유튜브의 인기도에 따라 공연 곡을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관객이 우리가 연주할 곡을 선택하는 셈이죠. 하지만 관객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해요. 코믹함도 조금 있을 것이고, 정말 한국적인 것들도 보여줄 예정이에요. 우리 K팝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아리랑'이죠. 우리 공연에 오시는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서지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이병헌, 알 파치노와 호흡

'비욘드 디시트' 출연 확정

배우 이병헌(사진)이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 출연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비욘드 디시트'는 제약회사의 비리에 맞서 싸우던 변호사가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이병헌은 알 파치노, 안소니 홉킨스, 조쉬 더하멜과 함께 출연한다.

안소니 홉킨스는 비리를 저지르는 제약회사 고문 역을 맡았으며 알 파치노는 주인공 조쉬 더하멜의 멘토이자 로펌 대표 역을 맡았다. 이병헌의 배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연출은 각본가 출신 센타로 시모사와 감독이 맡는다. 마이크 앤드 마티(Mike and Marty)에서 제작하며 미국 내 배급은 라이언스게이트(Lionsgate)가 담당한다. 3~4월 중 미국에서 크랭크인할 예정이다.

한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이 '비욘드 디시트' 촬영을 위해 20일 출국했으며 아내 이민정의 출산에 맞춰 4월 중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병철기자

게임 캐릭터들의 지구 침공

추억의 클래식 아케이드 게임 캐릭터들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독특한 설정의 액션 어드벤처 영화 '픽셀'이 1차 예고편을 공개했다.

'픽셀'은 팩맨, 갤러그, 동키콩, 벽돌깨기 등 80~90년대 오락실을 장악했던 추억의 게임 캐릭터들이 지구 침략을 선포하자 이를 막기 위해 어린 시절 클래식 아케이드 게임 고수로 이름을 날린 3인방이 그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내용의 영화다.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은 팩맨, 갤러그, 동키콩, 벽돌깨기, 테트리스 등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캐릭터들이 지구를 공격해 픽셀화 시키는 영상으로 충격을 안겨준다. 팩맨이 도시를 삼키는 모습을 보며 "팩맨이 악당이었어?"라고 외치는 이들 샌들러의 모습이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

/정성훈기자

'예술적 광기의 대결' 입소문 통했다

'위플래쉬' 흥행 역주행 박스오피스 정상 등극

또 한 편의 음악영화가 국내 극장가를 사로잡고 있다. 재즈 드러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위플래쉬'다.

'위플래쉬'는 전지 드러머가 되기를 갈망하는 학생 앤드류(마일즈 텔러)와 그의 광기가 폭발할 때까지 몰아치는 폭군 선생 플렛처(J.K. 시몬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1985년생 다미엔 차젤레 감독의 첫 장편영화로 선댄스영화제를 시작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편집상·각색상 등 3관왕을 수상했다. 국내에는 지난 12월 개봉했다.

영화 '위플래쉬'. 미이언 필러니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4위로 첫 등장한 '위플래쉬'는 주말 동안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16일 월요일부터 순위가 상승했고 개봉 8일째인 20일에는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21일 토요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67만9332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이다.

'위플래쉬'는 음악 영화임에도 스릴러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을 담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예술적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믿는 플렛처와 그런 플렛처에게 지고 싶지 않은 앤드류의 대결을 완벽에 가까운 촬영과 편집으로 담아 평단과 관객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내내 흘러 나오는 박진감 넘치는 재즈 음악에 사운드트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위플래쉬'가 관객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말에 대한 다양한 의견 때문이다. 한계를 뛰어넘은 예술의 경지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결말이라는 분석부터 폭압적인 교육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위플래쉬'는 신작들의 공세 속에서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한 만큼 당분간 흥행 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신작들 중에서는 디즈니의 신작 '신데렐라'가 선전하고 있다. 21일에는 13만8230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섰다. 누적 관객수는 22만6619명이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누적 관객수 521만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3위에 머무르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넥센 투타 조화 시범경기 '1위' 마감

한화, 삼성 꺾었지만 또 꼴찌 NC 탄탄한 전력 과시

넥센 히어로즈가 2015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1위를 해 올시즌 전망을 밝게 했다.

넥센은 22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시범경기에서 SK 와이번스와 1-1로 비겼다. 이로써 넥센은 시범경기 6승2무3패로 1위에 올랐다.

넥센 선발 앤디 밴헤켄은 5⅓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지난해 20승 투수의 관록을 드러냈다. 밴헤켄은 이번 시범경기서 3경기 13⅓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SK 선발 투수 백인식도 5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역투했다. SK는 6위(5승3무4패)로 시범경기를 마쳤다.

NC 다이노스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7-2로 제압했다. 선발 에릭 해커는 3경기 연속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던 롯데 타선을 5이닝 동안 4안타 1득점으로 눌렀다.

NC 타선은 3회초 1사 만루에서 조영훈의 싹쓸이 우익수 쪽 2루타로 앞서갔고 4회 2사 2루에서 김종호의 우전 적시타로 4-0까지 달아났다. 테임즈는 8회 무사 1·3루에 대타로 등장해 중월 3점포를 쏘아 올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NC는 7승2무4패로 2위를 기록하며 2015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4연승을 달리던 롯데는 이날 패배로 4위(7승5패)로 시범경기를 끝냈다.

KIA 타이거즈는 수원 원정길에서 마운드의 성장을 확인하며 KT 위즈를 8-2로 꺾었다.

선발 필립 험버는 3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고, 뒤를 이은 윤석민은 3이닝 2피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호투했다.

윤석민은 4회 1사 후 앤디 마르테에게 솔로포를 허용하며 국내 복귀 후 첫 피홈런을 기록했지만, 홈런이 나오기 전 마르테의 파울 타구를 포수 이성우가 놓치는 실책이 나와 비자책으로 기록됐다.

KIA는 7위(5승1무6패)로 시범경기를 마쳤고, KT는 9위(4승8패)로 막내 구단의 매서움을 과시했다.

한화 이글스는 대구 삼성전에서 권혁·송은범·배영수·윤규진 등 승리조를 모두 투입하며 2-1로 승리, 6연패 사슬을 끊었다. 그러나 한화는 3승9패로 시범경기 꼴찌를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2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NC다이노스의 경기에서 NC 테임즈가 8회 홈런을 날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기성용 선발 팀 승리 지원

손흥민(23·레버쿠젠), 기성용(26·스완지시티) 등 해외파 축구 선수들이 나란히 선발 출전해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손흥민은 22일(한국시간) 독일 겔젠키르헨의 벨틴스 아레나에서 열린 샬케04와의 2014-2015 분데스리가 26라운드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45분간 활약했다. 레버쿠젠은 전반 35분 카림 벨라라비의 결승골로 샬케04를 1-0으로 제압했다.

손흥민은 공격포인트나 슈팅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레버쿠젠은 정규리그에서 4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오름세를 이어나갔다.

기성용은 이날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애스턴빌라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스완지시티는 후반 42분 바페탕비 고미스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둬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가운데 8위(12승7무11패)로 한 계단 올라섰다.

반면 지동원(24·아우크스부르크)은 프라이부르크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70분을 소화했지만 팀은 0-2로 패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리그에서 뛰는 김보경(26·위건)은 볼턴과의 홈 경기에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다. 5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으로,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김민준기자 mjkim@

손흥민(오른쪽)이 22일(한국시간) 독일 겔젠키르헨의 벨틴스 아레나에서 열린 샬케04와의 2014-2015 분데스리가 26라운드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35분 선제 결승골을 넣은 카림 벨라라비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공격포인트 없어 … 김보경 5경기 연속 풀타임

박태환 오늘 운명 가를 청문회

도핑 관련 … 2년 자격정지 받으면 선수생명 끝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선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은 '마린보이' 박태환(26)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받는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서 지난 1월 병원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 원장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것으로 보고 병원장 김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제 박태환은 검찰 수사 결과 등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해명한 뒤 FINA 청문 위원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FINA 도핑 위원회는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세계 스포츠계는 도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는 추세다. 박태환의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병원 측의 과실로 드러났지만 박태환도 선수로서 주의와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수영·도핑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WADA는 고의성이 없거나 처음 금지약물 검사에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주다가 올해부터는 규정을 강화해 최대 4년까지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박태환은 지난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만큼 강화되기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박태환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수확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모두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또 2년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무산된다. /유현준기자

김효주 LPGA 첫 우승기회 잡았다

파운더스컵 3R 2타차 선두

김효주(20·롯데·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이후 첫 우승의 기회를 잡았다.

김효주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 파이어 골프클럽(파72·6583야드)에서 열린 JTBC 파운더스컵 3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7개를 쓸어담아 6언더파 66타를 쳤다.

중간합계 16언더파 200타를 적어낸 김효주는 세계랭킹 3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14언더파 202타)보다 2타 앞선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해 LPGA 투어 에비앙챔피언십 우승으로 올해부터 정식 멤버가 된 김효주는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공동 23위,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는 공동 8위를 기록했다. 정식 멤버로 첫 우승을 노리는 김효주는 마지막 날 루이스와 치열한 버디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교포 앨리슨 리는 코스레코드 타이인 9언더파 63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킴 카우프먼(미국)과 함께 공동 3위(13언더파 203타)에 올랐다. 전날 상위권에 올랐던 장하나(23·비씨카드)는 중간합계 12언더파 203타를 쳐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이미림(22·NH투자증권)과 함께 공동 5위에 머물렀다. /김민준기자

'순식간에 활활' 불에 취약한 글램핑장

강화도 캠핑장 화재…가연성 천막·전기장비 널린 탓 "개선 촉구"

사망 5명, 부상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를 키운 원인은 글램핑장 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램핑 텐트 재질이 가연성 천막이고 텐트 내부에 전기장비들이 모여 있어서 불이 날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글램핑장 이용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다.

글램핑(glamping)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텐트·테이블·의자·침낭·취사도구 등 기본 장비를 모두 대여해주는 방식의 캠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20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내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됐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재현장에는 전기장판, TV, TV 셋톱박스 등 전기장비가 모여 있었다. 경찰은 전기장비 가열로 텐트에 불이 붙어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애초에 가연성 천막 내 전기장비를 모아둔 것이 인재(人災)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덕 시민안전지킴이 과장은 "가연성 천막과 전기장비를 같이 둔 것은 살인행위"라며 "문제가 있는 글램핑장 이용을 금지하고, 화재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캠핑장 측이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캠핑장 임대업주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난 펜션의 건물 실소유주는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임대해 운영했다"며 "실소유주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22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25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모(36)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각각 김포우리병원과 부천 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진돗개, 평창올림픽 홍보견됐다 22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열린 '2015 세계애견연맹 국제 도그쇼 및 제1회 강원 펫 페스티벌'에서 진돗개가 2018 평창올림픽 홍보견으로 위촉됐다. /연합뉴스

포스코·경남기업 수뇌부 곧 소환할 듯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포스코건설과 경남기업의 검찰 수사가 기업 경영 수뇌부를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건설의 박 모 전 상무를 비자금 조성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지목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돌려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조성한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발주처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중 상당 금액이 리베이트와 무관해 보이는 경로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베트남 현지 사업비 처리를 결정한 포스코건설 임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베트남 사업을 총괄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경남기업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탐사 사업 등 8건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부 예산으로 성공불융자 330억원을 빌렸는데 검찰은 이 중 100억원대의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예산 유용 혐의를 받는 데에는 성완종 회장이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준기자

'애물단지' 한강아라호, 서울시 홍보선 활용

서울시가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한강아라호를 홍보선으로 활용하고 올해도 팔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위탁 또는 직접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아라호의 유찰 과정과 홍보선 활용방안을 22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서울시가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112억원을 들여 건조한 한강아라호는 310명 승선 규모에 150개 관람석을 갖췄지만 8차례 시범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정식 운항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유지비도 수억원대에 이르면서 서울시는 2012년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매각 입찰을 진행한 결과 4회 유찰됐다.

시는 감정평가 후 1·2차 입찰가격으로 106억원을 제시했고 팔리지 않자 3차 입찰에선 최초 예정가보다 10% 낮은 95억6000만원, 4차 입찰에선 15% 낮은 90억3000만원까지 깎았다. 그럼에도 매각에 실패했다.

시는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10개사와 15회에 걸쳐 수의계약도 추진하며 선착장 설치 후 20년간 무상사용 등 업체들의 일부 요구사항까지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매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한강아라호를 서울시 홍보선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시는 선상 공연을 기획하고 대관을 시행하는 동시에 한강공원 관광코스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유선준기자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구속수감

검찰이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황 전 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통해 성능이 미달한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선준기자

부고

▲ 최관석씨 별세, 최귀남(한국은행 인사경영국 급여후생팀 부국장)·귀홍·광혁씨 부친상 = 21일 오후 10시 40분 강북삼성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10-9266-7908 ▲ 김상오씨 별세, 곽효겸(양주시 관서복지국장)씨 모친상 = 21일 오전 2시, 부천늘향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031-864-4444 ▲ 권용중씨 별세, 권오훈(미국 거주)·연배(한국기후변화학회장) 오형(TV조선 심의실장)씨 부친상 = 20일 오후 10시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2-2228-5840 ▲ 이한선씨 별세, 이주형(충청일보 괴산담당 기자)씨 조부상 = 21일 오전 2시 10분 충북 옥천성모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 043-730-7444 ▲ 유종한씨 별세, 유원선(기호일보 파주주재기자)씨 부친상 = 22일 오전 경북 영주시 성누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54-637-4444 ▲ 이계석씨 별세, 이권구(뉴엔·원퍽)·지남(케이앤 대표)·원조(케이블 대표)씨 모친상, 김광호(경북테크노파크 기술금융본부장)·정선두(대우누기계연구소 지점)씨 장모상 = 21일 오후 7시 11분 의성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23일 오전 010-9857-0533 ▲ 정선기씨 별세, 정회열(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퓨처스 감독)씨 부친상 = 22일 오전 광주 전남대 장례식장 2층 자실, 발인 24일 오전 9시 063-250-1436 ▲ 박영례씨 별세, 최광철(수원 삼성 축구단 홍보기획영상팀)씨 조모상 = 22일 오전,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4일 02-3410-3151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